

광주·전남·제주, 제조 中소 혁신 바우처 2차 공고

오는 7월 10일까지... '제조혁신 플랫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 및 재기컨설팅 등 5천만원 까지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은 지역 제조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과 평가를 거쳐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4개 세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최대 5천만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에 진로제시·회생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재기컨설팅'은 별도 트랙으로 지원하며, 예

산 소진사까지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홈페이지에 등록된 서비스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는 지난 6월에 지원이 완료된 1차 사업에 이은 2번째 사업으로 1차 사업에서는 83개 기업에 27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차 사업의 지원 규모는 9.5억원이며 3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자기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자기부담 비율이 50%인 반면, 3억원 이내 기업은 10%만 부담하면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또, 지역 주력산업 업종, 소재부품 전문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기업 등은 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0일까지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홈페이지(<http://www.mssmiv.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맹환금 기자

코스피	↑	2,125.94(+0.84)
코스닥	↑	740.03(+0.28)
원·달러·환율	↓	1,202.10(-0.07)
금리(국고채 3년)	■	0.84(0.00)

광주 상생 일자리박람회 오늘부터 7일까지 DJ 센터서 40여개사 참여·100여명 채용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은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광주 상생 일자리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오는 7. 1(수)일부터 7. 7(화)일까지 행사 참여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이솔루션, ㈜하이코리아 등 지역 우수 중소기업 40여개사가 참여하며, 100여명 이상의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화상면접을 희망하는 기업에 주최기관에서 화상면접 전용 부스를 설치하여 지원한다.

비대면 화상면접은 구인기업 인사담당자는 자사 사무실에서, 구직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마련된 화상면접 전용 부스에서 인터넷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7.10(금)일 14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7. 1(수)일부터 7. 7(화)일까지 일자리박람회 사이트(<http://www.gwangjujob.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취업 희망기업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맹환금 기자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과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 AI특성화 대학 구축을 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호남대학교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갖고, 광주은행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5천만원씩, 3년간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호남대학교에 출연키로 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은행-호남대, 대학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

3년간 1억5천만 기금 출연
AI 특성화 대학 구축 지원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와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 AI특성화대학 구축을 위한 대학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과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6월 29일 오전 11시 호남대학교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갖고, 광주은행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5천만원씩, 3년간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호남대학교에 출연키로 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협약식에서 "AI융합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내 대학 유일의 AI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전남 과학기술 발전위' 출범... 블루 이코노미 선도

기초과학·에너지·AI·우주항공 등 10개 분야 26명 구성

과학기술 정책 자문을 통해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를 선도할 '전라남도 과학기술 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9일 목포 상그리아 비치 호텔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 윤병태 정무부지사, 과학기술 발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과학기술 발전위원회' 출범행사를 가졌다.

앞으로 위원회는 전남의 미래 발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할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과 전남의 강점을 활용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마련 등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 이해도 제고와 연구시설 유지 보수 조성을 위해서도 힘쓰게 된다. /김태업 기자



K-동행 FESTA 중소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제 10호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아자동차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가한다. 기아차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하여 주요 차종에 대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는 특별 프로모션 <K-동행 FESTA>를 실시한다고 1일(수) 밝혔다. 기아차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취지에 공감하고 잠재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K-동행 FESTA>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국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내수 경제 회복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도, 부영그룹 '한전공대 설립부지' 40만㎡ 기부

기부증서 전달...세계 으뜸 에너지 특화대학 육성 '속도' 기리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전공대 부지 확보에 따라 대학 설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세계 으뜸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한전공대 설립사업은 대통령령 및 국정운영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 지난해 1월 나주 부영CC 일원이 설립 부지로 선정돼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지난 4월 17일 교육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20일 설립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김정관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달 28일 부영그룹(회장 이종근)이 한전공대 설립부지 40만㎡ 기부증서 전달식을 갖고 이날 말까지 학교법인 한전공대로 소유권 이전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부영빌딩에서 가진 행사에는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을 대신해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 최영환·김시방·이기홍 대표이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우윤근 한전공대 범시민지원위원회 고문, 윤병태 정무부지사, 김회천 한국전력 부사장, 강인규 나주시장, 한전공대 설립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부지 기부 전달식은 지난해 8월 부영CC 부지의 일부인 40만㎡를 한전공대에 무상 제공키로 한 기부 증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최근 부영주택 이사회의의 결을 거쳐 이뤄졌다.

전달식에서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은 학교법인 한전공대에 부지 기부증서를 전달하고, 김회천 한전 부사장은 이종근 회장의 통 큰 용단과 기부의 뜻깊음을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성심